

공예문화 확산 · 시민 향유 기회 확대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 선정... 5월 17~26일 프로그램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당은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등 모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 공예주간 행사 등 전주를 공예산업의 거점도시로 특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오는 5월 17~26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공예X오감 전시 △지역공예인과 함께하는 C-st 공예체험 △공예생활 토크콘서트 △공예굿즈 팝업마켓 △공예생활 이벤트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전당에 따르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공예 자산과,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다년간 쌓아온 사업 수행 노하우를 발휘했다.

특히 사업 수행 부서인 전주공예제품전시관이 공예주간 행사 등 다수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으며, 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판매 문화기관이자 공예문화 종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해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공간적 우위성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층 더 높아진 양질의 공예문화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위풍당당 공예 생활을 주제로 공예문화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향유의 장(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

모사업은 공예예술 생태계의 자생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예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선정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특색 있는 공예문화 콘텐츠를 발굴·기획하고, 나아가 공예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이다. /장은성 기자

새해맞이 첫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열린다

국립무형유산원 · 한국문화재단, 위도띠벚놀이 · 구례잔수농악 등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설 맞이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실연하는 것으로, 매월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올해 첫 공개행사로서는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 일원에서 띠로 만든 배를 띄우며 마을의 평

안과 장수, 어촌지역의 풍어를 기원하는 △위도띠벚놀이와 전남 구례군에서 새해를 맞아 마을의 액을 물리치고 풍요와 복을 기원하는 △구례잔수농악, 경남 거제시 죽림마을 일원에서 대규모 공동 제의인 △남해안별신굿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월대보름에는 광주광역시 고싸움놀이테마파크에서 마을의 풍요와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을 기원하는 대규모 집단 민속놀이인 △관주칠석고싸움놀이

를 비롯해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동해안별신굿 △영산쇠머리대기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개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이나, 한국문화재단(02-3011-2153)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예술꿈나무 인재 120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인재 육성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술꿈나무 인재 120명을 선발해 재능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전주예술중, 남원국악예술고와 함께 5월부터 29일까지 '2024년도 예술꿈나무 재학 인재 육성사업'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꿈나무 재학인재 육성사업'은 예술분야에 재능있는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예술전문학교인 전주예술중학교와 남원국악예술고의 인적·물적기반시설을 활용해 3월부터 9개월간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5월부터 29일까지이며 음악, 무용, 미술, 연기 등 학생 본인이 관심있는 과목을

선택해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본 사업은 예술에 재능 있는 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흥원과 함께 동 사업을 진행중인 남원국악예술고 정운철 교장과 전주예술중 정 의봉 교장도 "진흥원의 예술인재 육성 취지에 발맞추어 예술꿈나무 재학인재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박물관, 구입 유물 특별전 개최

5월 25일까지 고문서·옛 책·서화 작품 등 100여점 공개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김은희)은 오는 5월 25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구입한 유물들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4년간 구입한 고문서, 옛 책, 서화 작품 등 100여 점의 박물관 소장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물 구입 공고를 통해 전국에서 수집된 유물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과 의미를 갖고 있어, 인생사처럼 스토리 라인을 설정했다.

1부는 '배우다, 존하다, 나아가다'로, 2부

는 '맞잡다, 지키다, 전하다, 행하다, 쓰고 그리다'로, 3부는 '기리다, 잇다'로 구성됐다.

또한 60세의 나이로 완영(完營) 초시(初試)를 보았던 남원에 사는 진건수(陳健秀)의 집념, 멀리서 온 청년을 떠나 보내며 시를 써 준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의 마음, 추교영의 완산(完山)경과 유영완의 목죽 등이 관객을 기다린다.

김은희 전북대박물관장은 "정기적으로 특별전을 개최해 모든 유물을 공개해 갈 예정"이라며 "학생과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제20회 군산어르신 예술제 및 작품전시회가 지난 1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과 제1전시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20회 군산 어르신 예술제 · 작품전시회 성황리 개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군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미순)이 주관하는 제20회 군산어르신 예술제 및 작품전시회가 지난 1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과 제1전시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소공연장에서는 어르신 MC가 진행하는 식전 행사 및 기념식과 함께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복지관을 이용하며, 배우고 익힌 솜씨를 유감 없이 발휘하는 예술제가 개최되었으며, 제1전시실에서는 어르신들의 서화, 서예, 문학, 사진 등 약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스무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스물, 청춘'을 주제로 청춘의 꿈을 떠올리고, 노년의

밝은 노후와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새로운 노년상을 정립하고자 했다.

또한, 서로 소통하는 대화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어르신 및 일반 시민 등 행사장을 찾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정미순 관장은 "군산어르신 예술제 및 작품전시회"가 스무번째를 맞이하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예술제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